

도교육청, 학원 방역 실태 점검

코로나19 예방·학생 안전 강화 위해 27일까지 5270곳 대상 방역물품 비치 등 현장점검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학원들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학(원)생 안전 강화를 위한 학원 현장점검을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급 학교 개학연기로 학생들이 학원에서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5,270곳으로 교육지원청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현장점검 미실시 학원에 대해서는 서면점검, 유선점검 등 기관 실정에 따라 병행 실시한다. 점검은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 필수물품 비치 여부와 시설 내 소독 여부, 예방수칙 게시 여부,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4개 시·군 학원 및 교습소 30여 곳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역 학원 밀집지역이나 대형학원을 중심으로는 3월중 교

육부와의 합동점검도 이뤄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원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원들에 대한 방역 안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교직원들과 식사하며 주변 상권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원광대학교 학군단, 학군장교 57명 임관

송치민 소위, 우등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상 수상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학군단이 2020년 학군장교로 57명을 배출했다. 임관식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없이 축소된 가운데 송치민 소위가 우등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상을 받았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57명의 신입장교는 1, 2학년 때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돼 3, 4학년 전공 학위 교육과 군사학 및 군사훈련, 임관 종합평가 등을 거쳤다. 올해 임관한 전체 학군장교는 육군 3,578명, 해군 138명, 공군 134명, 해병대 121명, 여군 282명으로 이들은 각 군 병과별 보수교육 과정을 거쳐 일선 부대로 배치된다. 전체 임관장교 중 독립유공자 손자, 3대 장교 가족, 쌍둥이 임관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물이 많은 가운데 원광대 고건욱 소위는 같은 원광대 학군단 출신인 아버지와 육군하사로 전역한 어머니, 국민대 학군단 54기로 임관한 형의 영향을 받아 장교의 길을



원광대학교 학군단이 2020년 학군장교로 57명을 배출했다.

걸었으며, 이규호 소위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할아버지, 해군 소령으로 전역한 아버지에 이어 3대가 장교 가족이 돼 주목을 받았다. 박맹수 총장은 "57명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소위들과 청년 장교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학군단 장님을 비롯한 훈육관 여러분께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무인으로서 강인한 체력과

군사적 해안,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 육군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장도에 건승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대, 소상공인 위한 캠페인 전개

대구·경북지역 돕기 위해 교직원 대상 성금 모금 운동도

"따뜻한 동행으로 코로나19 고통 나눠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대구·경북지역을 돕기 위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도 전개하고 했다. 전북대는 최근 김선희 코로나19 대책본부장(교학부총장) 명의로 후원의 집 이용 캠페인을 안내하고, 그 목록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후원의 집은 그간 전북대 발전

을 위해 매달 소액을 기부해 온 곳으로 100여 군데가 있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들은 장학금 등에 쓰여지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그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시름에 잠긴 인근 소상공인들과의 따뜻한 동행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김옥진 교수, 한국동물보건복지학회장 취임

"동물보건사 전문 인력 양성 위한 시스템 마련·동물복지 분야 학술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농식품융합대학 반려동물산업학과 김옥진 교수가 한국동물보건복지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동물보건



복지회는 2003년 창립된 한국동물복지 학회가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도입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동물보건복지학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옥진 교수는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인 '인

간과 동물의 교감치유 기전 및 외부환경이 동물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관 책임자로 선정돼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학회평위원회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2년 동안 회장을 이끌게 됐다. 김옥진 교수는 "동물보건사 국가자

격 도입으로 정부와 관련 학과들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회장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동물보건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동물복지 분야 학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교육청, 학교숲 22곳 조성

친자녀적 학생 정서 함양 지원 위해 12억9300여만원 투입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학교숲 22곳을 조성한다. 지난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자녀적인 교육활동 공간을 위해 12억9천3백여 만원을 투입해 전주 6개교를 포함한 22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학교 숲 조성 및 활용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 지원 등 전문성을 확보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학교숲 조성에 대한 설계자문·현장지도 점검 등 컨설팅 ▲학교숲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문 ▲학교숲을 활용한 통합교육과정 운영 방안 ▲학교숲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기타 학교숲 및 조경과 관련 자문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숲을 통해 정서적 안정, 생태감성 발달, 도시숲 증대 등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숲과 연계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 11개교, 2019년 14개교에 대해 학교숲을 조성,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